



# Delicious Chicken

친한 친구들과 꼭 가봐야 할 맛있는 백숙집

## 성북동 메밀 수제비 누룽지 백숙



조 해인 기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맛있는 닭요리 전문점을 찾게 되어 버린 필자는 어디를 가건 길가에 걸린 간판부터 보게 된다. 서울 시내 지역적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닭튀김집이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바베큐 닭집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는데, 규모가 작은 곳은 다시금 지나도 어딘지 찾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맛있는 닭집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 ① 누룽지 백숙집을 가득 메운 손님들
- ② 고소하고 바삭한 메밀전
- ③ 가시오가피, 밤, 대추, 인삼 등  
각종 한약재가 들어있는 닭백숙
- ④ 닭육수로 끓인 누룽지 찹쌀죽



## 우연히 발견한 메밀

몇 달 전 어느 주말, 늦잠을 자다 일어나 주섬주섬 겨우 점심을 챙겨먹고는 지겨움을 달래고자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 삼청터널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꼬불꼬불 산세를 구경하며 내려가던 중, 산을 거의 다 내려가서 오른쪽에 누룽지 백숙을 하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점지를 해 두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저곳에 들러야겠다’ 라고 다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다시 한 번 찾게 된 필자는 배고픔을 달래고자 누룽지 백숙을 먹으러 들어가 보았다.

도로변에 있었던 그 백숙집은 회색빛 건물 모던한 디자인에 귀여운 노란색 간판으로 찾기가 무척 쉬웠다. 처음에는 퓨전 요리집 같은 외관이라 닭백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메밀수제비가 회색빛이고 누룽지가 노랑색이니 어찌보면 어울린다는 생각도 든다.

##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누룽지 백숙

늦가을 저녁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도 식당은 빼곡이 들어 찬 손님들로 북적였고, 찬바람을 피하고자 들어간 식당내엔 줄을 서서 주문을 해야 했는데, 백숙 증기로 안경에 김이 서려버렸다. 잠시 기다렸다가 2층에 자리났다는 소리에 냉큼 올라가 앉았다.

다른 사람들이 무얼 먹는지 확인을 하고, 메뉴판을 보았는데 메밀음식이 전문인 듯 보였으나 실제 손님들은 닭백숙을 먹고 있는 듯 했다. 게다가 대부분 4~6명의 단체 가족손님으로 우리처럼 둘만 온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길 기대하며 닭백숙을 주문했다.

## 에피타이저 메밀전

주문 후 양상추 샐러드에 이름모를 나물 등 갖은 반찬이 먼저 나왔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 했지만 모두 깔끔하고 정갈한 맛에 부조화를 탓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금 구워진 듯한 따끈하고 고소하고 바삭한 메밀전

이 에피타이저로 나왔는데 피자조각처럼 잘라진 전 한 가운데 돌나물이 얹혀있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돌나물 생채가 귀엽기까지 했다.

피자 같은 전 한 조각에 초고추장을 묻힌 돌나물을 얹어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입에 쏙~. 고소한 메밀전에 돌나물이 아삭, 다소 느끼할 수 있는 메밀전의 맛이 돌나물 생채로 인해 전혀 다른 맛을 냈다. 그리고 나물무침과 김치도 맛이 썩 괜찮아 백숙이 나오는 동안 지겹지 않게 주린 배를 달랠 수 있었다.

### 고소한 누룽지 찹쌀죽과 푸짐한 닭백숙

곧이어 나온 주메뉴 닭백숙은 누룽지죽과 함께 나왔다. 지난 번 남한산성에서 맛보았던 백숙과 유사했다. 뜨거운 누룽지 찹쌀죽이 커다란 뚝배기에 나오고 그 위 큰 접시에 한약재와 함께 끓여진 닭백숙 접시가 얹혀 나온다. 아래 놓여진 뜨거운 누룽지죽의 열기 때문에 백숙은 먹는 내내 따뜻했다.

그런데 이 음식, 양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이미 메밀전으로 요기를 채워버린 듯 하기도 하고 닭도 양이 꽤 많다. 백숙에는 가시오가피, 밤, 대추, 인삼 등 여러 한약재가 들어있었고 아주 폭 잘 삶아져 살을 발라 닭육수로 끓인 누룽지죽과 함께 섞어 닭죽으로 먹어도 좋았다.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 닭죽을 작은 그릇에 한 번씩 떠서 맛만 보고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렇다고 도무지 이걸 그냥 놔두고 가기에는 맛있는 닭고기도, 따끈한 닭죽에도 미련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 결국 포장해 나왔다.



남은 닭죽은 포장이 가능하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 앞에서 주차해둔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너무 맛있고 푸짐한 백숙집이 있으니, 언제고 꼭 여기서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떨자고 말이다.

기다리던 차가 왔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옆에 있는 내 짝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여기 나중에 친구들이랑 꼭 같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

• 메뉴 : 메밀비빔밥, 메밀수제비, 메밀비빔국수, 누룽지백숙 등

• 전화 : (02)764-0707

• 위치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6번 출구에서 버스(1111, 2112번) 승차후 종점에서 하차, 삼청동에서 삼청공원지나 산길을 지나 성북동길로 접어들어 산쪽에서 내려가다 오른쪽